

◀하나님! 나의 하나님▶ 12월은 흰색이고 싶다

김성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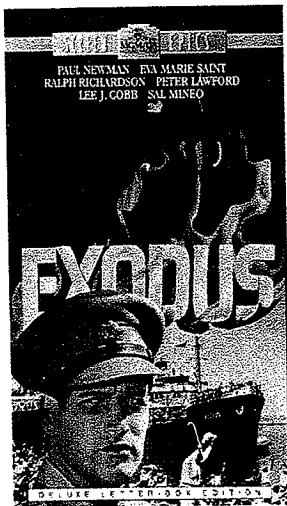
올 정월에 비해 우수수 빠져나간 머리카락입니다.
머리에만 담은 말씀으로 수수깡처럼 마른 내 영혼
이제는 가슴으로 한올한올 심으라는 뜻인가요?

한 눈에 넓은 세상 다 담던 시력, 이제는 흔들리며 멀어지고 있습니다.
나만의 담 넘지 못해 비대해진 나를 접고
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살뜰히 보라시는 뜻인가요?

사뿐하게 디디던 무릎, 이제는 내 몸 하나 겨우 버텨내고 있습니다.
땅 끝이라느니 온 땅이라느니 이런 헛된 자랑 버리고
느릿느릿 우보천리 황소걸음으로 걷다보면
천리 하늘 길 주님앞에 설 수 있다는 뜻인가요?

갈수록 몸은 굵퍼지고 가슴속 그리움은 더 깊어집니다.
어머니 가신 나라 품고 사는 마음
애태우며 더 깊어지라는 조용한 뜻으로 알겠습니다.

정월 초하룻날의 가슴 이미 식고
욕심으로 바뀐 내 마음의 12월은
너울처럼 내려 꽃잎처럼 덮는
씻은 무 같은 새로움의 흰색이고 싶습니다.



◀학창시절의 영화▶ 영광의 탈출
2차대전이후 나라없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인 영국군 장교인 폴 뉴먼의 지휘로 '엑소도스' 호 배를 타고 수용소를 탈출하여 팔레스타인에서 그들의 국가를 세운다는 강동적인 스펙타클입니다. 이 영화 때문에 폴 뉴먼은 아랍국가에서 입국금지된 인물이 되었습니다. MBC '주말의 영화' Signal 곡으로 사용되어졌던 주제곡은 토요일 밤마다 작은 TV 모니터에서 시작되는 영화에 가슴 설레게 했습니다.
'To make this land our home if I must fight, I'll fight to make this land our own until I die this land is mine'
"이 땅을 우리의 고향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싸워야 한다면 나는 이 땅을 나의 조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싸울 거야! 내가 죽는 순간까지 이 땅은 나의 것". 전율마저 느끼게 하는 결연한 조국애 서린 주제곡입니다.

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	“예수!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랑으로 얻었다” (요13:35)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	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섬김과 봉사 *의명성 -명예
제6권 51호	기초성경공부이수. 정장으로 예배. 남 이야기 금지	2005년 12월 11일
☎ 369- 5077. Khyber Pass Rd.(The Church of Holy Sepulchre). www.calvary.org.nz		

우리들의 거짓말



우리는 '내 기도하는 이 시간' 의 찬송을 부르고서는
겨우 10분에서 15분의 기도만으로 만족합니다.

우리는 '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' 의 찬송을 부르면서도
하는 수 없이 뽀뽀해서 끌려가야만 겨우 하나님 일에 봉사를 합니다.

우리는 '만 입이 내게 있으면' 을 함께 찬송하고서도
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가진 입 하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

우리는 '빈들에 마른 풀 같이' 의 찬송을 열심히 부릅니다.
그러나 하나님께서 몇 방울의 비라도 뿌리시면
비 때문에 교회에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.

우리는 '주 믿는 형제들' 을 부르고 나서는
아주 사소한 일로 믿음의 형제와의 관계를 끊어 버립니다.

우리는 '주님께 기꺼이 봉사하리' 라는 찬송을 부르지만
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계속해서 불평을 합니다.”

다음 번에 찬송가를 펼 때 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이
진정으로 하는 말이 되게 하십시오.

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 보면
이루어진 일보다 말을 더 많이 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.

◀말씀따라 행하기▶
주님은 기도가 얼마나
세련된지 보지 않으시고
얼마나
진실한지 주목하십니다.

◀인품따라 행하기▶
거북은 아무도 몰래
수천 개의 알을 낳지만
암탉이 알을 낳을 때면
은 동네가 다 안다

주 일 예 배

(*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)

영광송 Gloria	Calvary	다 같이
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		
응서의 선언 Proclaim	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	인도자
*찬송 Hymn	23장	다 같이
*성서교독 Response Reading	3 (시 4편)	
*신앙고백 Apostle's Creed	사도신경	
교회소식 Welcome & Announcements		
찬송 Hymn	363장	
기도 Pray		이규임 권사
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	창세기 4:1-8	인도자
성가대 찬양 Choir		나무십자가성가대
설교 Sermon	하나님 이야기(4) "가인과 아벨의 믿음 차이"	김성국 목사
찬송 Hymn	510	다 같이
헌금기도 Offering Pray		인도자
응답송 Response Song	'이 믿음 더욱 굳세라'	다 같이
축도 Benediction		김성국 목사

(예배를 마치고 본당 뒷편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)

◆12월 예배위원◆

주일	기도	헌금위원	가족찬송	안내
27	박일영	백제성		장현중 이광희
4	이광희	변민강		
11	이규임	손영희	김석목, 김윤자	노은숙 정희자
18	이재영	신미숙	박완배, 전미경	
25	장현중	양경배	김홍구, 윤경례	

◆12월의 교회력◆

주일	예배와 모임
4	구역예배(9):종강
11	믿음의어머니기도회(20)
18	성탄축하의밤(24)
25	성탄예배 세례식
31	송년주일 송구영신예배(31):11:30

2005년 교회생활	*3주간 예배,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. *여러교회를 다녀 본 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.
1. 성경 1독만 하기(하나님 사랑) 2. 전도하지 말고 대신 친절하자(이웃 사랑) 3. 처음 만난 날 처럼(교우사랑)	
주일예배: 아동, 학생: 낮 12시 수요일예배: 7:30 pm	새벽기도회: 금 5:55 청년부: 토 오후 2시

- 교우소식
<이사> 김성국 목사 ☎815-8289. 1E 27 Morning Star Pl. St Luke
*심방 와 주세요!. 그리고 놀러 오세요!
- "믿음의 어머니 기도회" 한주간 연기합니다(20일)
- 금주 특별수요일예배: **Auckland 시온합창단 초청 "수요일의 크리스마스"**
*미국으로 이주한 윤형권 집사께서 조직한 합창단이기에 더 정이
주 수요일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시온합창단의 성가와 크리스마스
를로 예수님의 나심을 미리 느껴 보겠습니다.
- 2005년도 마지막 "구역예배". 금주간에 가져 주십시오
*한 해 동안 같은 구역식구로 나누었던 믿음의 정을 오래오래 간직하세요
*<성탄축하의 밤 식사준비 논의>: 구역모임시 24일 밤의 식사를 의논하여
주십시오. 함께 준비하여 Buffet 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
- 2005년 유아세례 <일시> 25일(성탄절) <대상>: 4세 어린이까지
*2005년 성탄절, 아기로 오신 예수님처럼 내 아이의 유아세례일로 기억되는
해로 삼으십시오. <신청:이태한 목사>
- 2006년도 교회자원봉사지원(자원봉사 지원서 참조)
*내년에도 함께 세워져 가는 갈보리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.
- "성탄축하의 밤" (예고) <24일 저녁 6시. Pump House>
*성탄절을 즐겁게 보내지 못하는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참석하십시오.
*축하순서에 필요한 물품을 Donation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
- 한국축구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.
*어제 새벽 조 추첨에서 프랑스, 스위스, 토고와 한조를 이루었다는 소식입니다.
내년 겨울 6월은 4년전 그때처럼 여성들도 축구가 재밌는 한달이었으면 좋겠
니다.

◀착한 시인들▶ 영영 울고 싶은 날 권영분

가끔은 이유없이
영영 울고 싶은 날이 있었습니다.
살아간다는 것이 힘들어서,
아니면 살아 있는 것이 행복해서...
삶에 있어 언덕은 나에게
시를 쓸 수 있게 하여준 스승이었기에
햇빛도 바람도 소나기도 어느 것 하나
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.
소꿉놀이를 하던 코흘리개 친구들도,
보물찾기를 하던 그 슬밭공원도,
플라타너스 벤치 단발머리 소녀도,
단정한 교복에 풀 먹인 하얀 칼라도,
언니에게서 내려뜨던 현 교과서도,
낡은 가방도...

흔하고 평범한 것들이 아
답고 행복해 보일 때 인생의
깊이를 알게 된 것이 아닐까
요? 큰 이별을 앞둔 사람도
세상을 허투루 보지않을 것
이고 죽음의 문 앞에서 살아
난 사람도 지금 보는 햇빛이
전에 보던 햇빛이 아니겠지
요
우리는 하늘을 기다리며 그
래서 세상을 떠날 큰 이별을
준비하며 사는 존재입니다.
내게 다가온 사람들을 소중
하게 여겨지는 마음이야 딸
로 하나님도 울고싶을 만큼
아름다운 마음아닐까요?